



첨단산업 신시장 선점, 범정부 표준역량 총결집

- 산업부 등 18개 부·처·청 합동 '25년 국가표준시행계획 확정, 2,475억원 투자 -
-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('26~'30) 수립 착수 -

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와 해외인증 대응 지원 정책에 올해 2,475억원(전년 대비 9% 증가)의 예산을 투입한다. 국가표준심의회(의장 :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)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18개 부·처·청이 표준화 정책을 종합해 마련한 「2025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」을 심의·의결하였다.

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('21~'25)의 마지막 시행계획인 '25년 시행계획에서는 AI, 반도체, 6G 등 첨단산업 분야 신시장 확보를 위한 기술 표준화*에 집중하여 성과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(붙임1). 해외인증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.

*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('24.5월, 산업부),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('23.11월, 과기부) 이행 등

또한,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편의 및 안전 표준을 지속 마련하고, 기업에서 표준화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성 강화를 위한 R&D-표준 연계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표준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.

한편,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('21~'25)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국제표준 제안, 서비스표준 개발 등 성과 지표의 최종 목표들을 '24년 조기 달성하였다(붙임2). 이는 한국인 ISO 회장을 비롯한 국제표준 민간 전문가들과 각 부처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 등에 매진한 성과로 보인다.

아울러, 향후 5년의 국가표준화 정책 방향을 담은 「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('26~'30)」을 수립하고자, 18개 부·처·청은 '범부처 민·관 합동 TF'를 구성하여 디지털·AI·ESG 전환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.

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“'25년도 부처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겠다.” 면서, “제6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

중요한 시기인 만큼, 경제·산업·사회 전 분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중장기 표준 전략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.” 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표준정책국	책임자	과 장	박종섭 (043-870-5340)
	표준정책과	담당자	연구관	이보하 (043-870-5341)



붙임 1

부처별 「'25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」 주요 내용

소관부처	주요 계획	투자('25)
산업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」 이행 : AI, 반도체 등 12개 첨단분야 국제표준 40건 제안 등 ○ 「국제 AI 표준 서밋」 개최, APEC 「AI 표준 포럼」 창설 ○ 수출 유망품목 해외시험기관-국내기관 상호협약 확대 ○ 표준융합강좌 신설, 석박사 표준전문인재 양성 ○ 산업·에너지 분야 R&D 초기단계부터 표준화 병행 	654 억원
과기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6G, 사이버보안 등 ICT 핵심 신기술 분야 표준 개발 ○ ICT 표준 전문가 양성(ICT 표준 명장 등) ○ 과학기술 신뢰성 제고를 위한 측정표준(기기 등) 개발·보급 ○ ICT 분야 R&D 초기단계부터 표준화 병행 	1,321 억원
중기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 제조기업 핵심 공정·설비의 데이터 호환*(상호운용)을 위한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 및 가이드 개발 <p>* 공정(주소, 열처리 등)과 장비(공작기계, 사출기 등)의 데이터 표현 방식</p>	90 억원
국토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철도(차량·용품), 공간정보(디지털 트윈국토*) 분야 표준화 <p>* 도로, 교량, 항공사진, 상하수도, 지하철 등을 통합한 3D 통합지도</p>	73 억원
행안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CCTV, 등산로, 주차장 등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확대 	20 억원
환경부 고용부 문체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안전, 환경(생활소음 등), 문화콘텐츠(공연 등) 국가표준 개발 	64 억원
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공식품(푸드테크기술), 농축산식품, 수산식품 안전을 위한 국가표준 개발 ○ AI 적용 의료기기 평가 국제표준 제안 	24 억원
복지부 등 7개 부·처·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시행 및 감염병, 만성질환 검사용 표준물질 개발 ○ 공공조달물품 정보 제공 강화 등 	229 억원
합계		2,475 억원

붙임 2

「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」 '21~'24년 주요 이행 성과

□ 5차 기본계획('21~'25)의 주요 성과지표별 목표들을 '24년 조기 달성

성과지표	성과목표	'24년 실적		최종목표 대비 달성도(누적)
		실적	누적	
ISO, IEC 표준제안	('20) 1,073종 → ('25) 1,400종	93종	1,409종	100.6%
ITU 기고문 제안	('20) 7,482건 → ('25) 8,482건	362건	8,659건	102.1%
서비스표준 개발	('20) 1,216건 → ('25) 1,316건	23건	1,320건	100.3%
국제공인인증기관	('20) 962개 → ('25) 1,100개	70개	1,287개	117.0%
표준인증정보활용	('20) 2,200만건 → ('25) 4,500만건	1,306만건	6,245만건	138.8%

○ 첨단산업 국가표준화전략, ICT 표준화전략 수립·추진 등을 통해
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제안을 대폭 확대*

*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제안 : ('22) 23건 → ('23) 23건 → ('24) 53건(30↑)

○ 기업의 인증·기술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표준화 집중 지원*

* 시험인증기관 상호협약 확대(186→200),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품목 확대(22→25) 등

○ 즐겁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지원하는 국가표준 지속 개발

* 공모전·국민투표를 신설해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15건 발굴
재사용전지, 파워뱅크, 개인이동장치 등 신제품 안전기준·제도 정비

○ 산업계, 학계 등 민간 중심 국제·국가표준 개발 체계 강화

* 민간 중심 첨단산업(22개) 및 ICT(51개) 표준포럼·위원회 운영, 민간기관 중심 국제 표준 공동개발 사업 신설(AI 등 6개 분야), R&D-표준 연계과제 확대(39→95) 등

□ **추진배경**

-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('26~'30) 수립 시점 도래*
 - *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(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)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
 - 표준 정책의 중장기 비전 · 목표를 제시하는 범부처 전략 마련
- 특히, 인공지능·디지털 전환 등 우리 경제·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의 역할 정립

□ **주요내용**

- 국가표준심의회 산하 「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 TF」 운영('25.3~11)
 - * 18개 부·처·청 표준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
- 조직구조(안)

